

경영이양 직접 지불제 사업 '유야무야'

매년 감소하는 해녀 신규 양성 등 위해 도입 올해 첫 사업 시행 속 신청자는 한 명도 없어

제주시, 홍보 강화·미비점 보완 등 대책 모색

물질을 조사하는 제주 해녀수가 매년 감소하는 가운데 신규 해녀 양성 등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경영이양 직접 지불제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수산공익 직접지불제 사업의 하나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신규 해녀를 양성, 해녀문화 전승·보존을 도모해 나

간다는 방침이다. 경영이양 지불제 사업은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한다. 직불금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어업을 해온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연간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까지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경영이양을 받은 어업인은 어촌계 가입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는 고령어업인에게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어촌계 가입 문턱을 낮춰 어촌진입 기회를 제공해주자는 취지다. 그렇지만 22일 현재 경영이양 직접 지불제를 신청한 어촌계원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관내 어촌계 등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를 알리고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신청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불제 시행에 따른 보완점이나 미비점 등이 없는지 등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 해녀는 매년 감소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현재 해녀는 총 36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3820명보다 207명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중단했던 물질을 재개하거나 해녀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이 물질에 나선 해녀가 30명으로 집계됐지만 고령화와 질병으로 인해 조업을 포기하거나 사망한 해녀 수가 237명에 달해 전체 해녀 수 감소가 이어졌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2141명, 서귀포시 1427명이 물질에 종사하고 있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제주시 도서종합개발사업 본격

추자 영흥리에 수변공원 조성 등 32억원 투입

섬 속의 섬 추자도를 비롯 도서지역의 기초생활기반 구축과 지역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한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2021년 도서 종합개발사업으로 3개 사업에 32억 원을 투입, 본격 추진해 나간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사업별로는 추자도 행정선 건조에 15억2000만원을 비롯 신양2리 용담병 진입로 및 난간시설 정비에 6억4000만원, 우도 해수욕장 탈의실 구축에 1억1000만원 등이다. 추자도 행정선(20t 규모)은 이달 착공 오는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매년 침식 및 유실이 발생하면서 구조물 등이 파괴돼 경관 훼손을 초래하는 추자도 영흥리 수변공원 정비에도 8억원(국비 6억 4000만원, 지방비 1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영흥리 수변공원은 침식 및 유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존 구조물이 파손되는 등으로 경관을 해쳐왔다. 시는 이에따라 제4차 도서 종합개발계획에 반영 이달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본격공사에 돌입, 오는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윤형기자

추자특산 '참모자반' 양식실증사업 성공

해양수산연구원-추자도수협 공동 추진 성과



수중에서 군락을 이뤄 서식중인 참모자반.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추자도수협과 공동으로 참모자반 양식실증 사업을 추진한 결과 새소득원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밝혔다. 모자반 중에서도 유일하게 식용으로 사용되는 제주 참모자반은 대표적 향토음식인 '몸국'의 주재료로 쓰인다. 참모자반은 미역, 톳, 우뚝가사리와 함께 해녀들의 주 소득원으로 꼽히고 있으나 최근 갯 녹음 확산 등 기후변화 등으로 자원이 급감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참모자반 kg당 가격은 습중량(수분을 포함한 무게)은 3000원에서 4000원 선, 건조중량은 3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우뚝가사리(1000원 선)나 톳(900원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격이다. 도 해양수산연구원은 해조류의 다양성이 뛰어나고 육상 오염원의 영향이 없는 우리나라 대표 청정해역으로 해조류 양식 적지로 판단되는 추자도의 서식환경을 활용해 지난 2020년부터 해조류 위주의 양식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참모자반 양식실증 사업은 지난해 9~10월에 추자 횡간도 연안에 4ha 규모의 양식시설에 2.5ha 종자들을 이식해 올해 1월부터 3월에 걸쳐 총 3회 수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길이는 3~4m 자연산에 비해 성장 속도가 크기가 월등하게 높았고, 양식해역 조류 소통이 아주 원활한 관계로 잡초나 빨 등의 이물질이 거의 없어 상품성이 높은 참모자반이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참모자반 수확량은 종자 양식줄 100m당 평균 500kg정도로, 총 20t(습중량)의 수확이 이뤄졌다. 육상에서 자연 건조해 총 2t의 물량을 kg당 3만원 선으로 판매한 결과, 총 6000만원의 조수입도 거뒀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양식실증 어장과 연계해 추가로 4ha 규모의 양식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총 8ha의 양식시설에서 참모자반을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참모자반의 경우 1회 종자 이식으로 최소 3년간의 수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8ha의 양식시설에서 생산되는 참모자반의 수확량은 약 100t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조중량을 감안하더라도 약 20t의 판매가 가능해 약 6억원 상당의 소득을 발생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소득원으로써의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대리기자



쪽파 씨앗 말리는 농민들 22일 제주시 한림읍의 해안도로에서 지역 농민들이 수확한 쪽파 씨앗 건조 작업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건조된 씨앗은 9월 무렵 파종에 사용된다. 이상근기자

지역 활력 이끌 청년공동체 선정·지원

행안부, '제주 프로젝트그룹 짓다' 등 100개 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청년공동체로 '제주 프로젝트그룹 짓다'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청년공동체 100개 팀을 선발하고, 본격적으로 지역 활력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지난 2017년 처음 시행돼 지금까지 51개 팀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참여를 대폭 확대, 더 많은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청년공동체를 선발하기 위해 지난 1

월부터 3월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전국 11개 시·도에서 청년공동체 341개 팀이 신청해 평균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 프로젝트그룹 짓다'가 선정됐다. 매월 마을 주민들의 영화 모임, 인문학 모임 등의 네트워크 행사를 운영하며 마을 주민, 청년, 이주민의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을 통과한 전국 100개 팀은 오는 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11개 시·도는 청년공동체에서 목표하는 활동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업수행비(팀당 800만원 상당)를 지원하고, 멘토·전문가 자문, 권역별 연계망 형성을 위한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고대리기자

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 선정

1위 '안부살피기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총 28건 신청사례 중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 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위에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한전·SKT 협업 빅데이터 '안부살피기 지원사업'이 선정됐다. 안부살피기 지원사업은 전력·통신 등에 대한 사용량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고독사 위험군(1인 가

구)의 안부를 사전에 살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2위는 민·관 협력을 통한 의료취약지 서귀포 지역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사업이, 3위에는 스마트폰으로 각종 고지·안내문 전달하는 모바일 고지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이 선정됐다. 이밖에 ▷상수도 검침원과의 협업을 통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전수 점검(4위) ▷지역특화 및 차별성을 살린 '서귀포인정' 온라인 시장 개척(5위) ▷제주 폼바당 교육문화 카드로 취약 청소년 지원사업(6위) 등이 선정됐다. 강다혜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을·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도 살균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 YouTube 석회질소 검색

▶ NAVER D.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

SM그룹 에스엠신용정보

생각만해도 머리 아픈 돈, 돈! 최선으로 받아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에스엠신용정보**를 선택하십시오!
만족으로 보답해 드립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부동산대금, 투자금, 빌려준돈(판결문, 공증), 약정금, 구상금, 계돈

고객님 언제든지 전화,방문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며 착수금(선불경비)일체 받지 않습니다

에스엠신용정보 제주지사 ☎ 064)756-9041

직원모집 추심관리사, 영업전문직을 모집합니다 064)725-9001